周本『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박진호**

요약

본고는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周本『華嚴經』卷36에 기입되어 있는 點吐口訣을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點吐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單點, 雙點, 線, 눈썹, 느낌標의 5 가지가 있다. 이 中 單點을 除外한 나머지 4 가지 點吐는 主軸의 方向이 垂直, 水平, 斜線, 逆斜線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본고는 點吐의 해독을 위해 特히 字吐 釋讀口訣 資料인『華嚴經』卷14 및『華嚴經疏』卷35에 記入된 字吐口訣과의 對應 樣相에 注目하였다. 이들 자료의 동일한 구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懸吐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點吐와 字吐의 대응 관계를 귀납해 보려 한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구문은 ①'爲N' 구문, ②'V已' 구문, ③ 세목 열거 구문, ④'等' 구문, ⑤'作/爲N' 구문, ⑥命名 구문, ⑦請願 구문, ⑧引用 구문, ⑨역접 구문이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 點吐 資料 周本『華嚴經』과 字吐 資料『華嚴經』의 懸吐 양상이 매우 비슷하며, 이것은 點吐 및 字吐『瑜伽師地論』의 현토 양상과 매우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 本考를 作成함에 있어서, 2002年 5月 誠庵古書博物館에서의 資料 調査 때 南豊鉉 先生님께서 해 주신 助言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口訣學會 少壯 硏究者들의 點吐口訣 資料 講讀會에서 여러 同學들(特히 張景俊 先生)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한국어세계화재단

*핵심어: 점토구결, 자토구결,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의 대응, 화엄경

1. 들어가는 말

本考는 高麗 中葉의 資料로 알려진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周本『華嚴經』卷36에 記入된 點吐口訣을 解讀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1] 이를 爲하여 特히 字吐 釋讀口訣 資料인『華嚴經』卷14 및『華嚴經疏』卷35에 記入된 字吐口訣과의 對應 樣相에 注目할 것이다.

本考에서는 各 漢字에 點吐가 記入된 位置를 다음과 같은 座標로 나타낸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周本『華嚴經』卷36에 나타나는 點吐를 形態에 따라 分類하면 單點, 雙點, 線, 눈썹, 느낌標의 5 가지가 있다. 이 中 單點을 除外한 나머지 4 가지 點吐는 主軸의 方向이 垂直, 水平, 斜線, 逆斜線의 네 가

1) 周本『華嚴經』點吐口訣 資料로는 이 外에도 誠庵古書博物館 所藏의 卷6, 卷22, 卷57, 湖林博物館 所藏의 卷31, 卷34가 더 있으나, 點吐의 確認이 可能할 程度로 精密하게 寫眞 撮影이 되어 있는 것은 卷36뿐이므로 卷36을 爲主로 살펴볼 것이다. 筆者는 2002年 5月 誠庵古書博物館 所藏『華嚴經』에 對한 2次 調査에 參與하여 周本『華嚴經』卷22, 卷36, 卷57, 晉本『華嚴經』卷20을 實査한 바 있다. 이 때 作成한 移點本도 副次的인 資料로 利用하였다.

지로 나타난다. 이 資料에 나타나는 點吐들을 形態別로 分類하여, 對應되는 것으로 推定되는 字吐와 함께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2]

單點

ㅣ	ㄱ		尸	入ㄱ
丁	寸		支	七
		ㄱ	口	巳/矢
乙		ㅣ	尸	皿
分	分	十		ㅣ

垂直線, 水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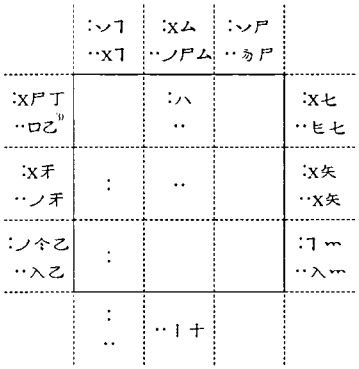
	—X ㄱ	ㅣX 今 —X 今	ㅣ 勹 尸 —X 尸	
ㅣナ尸丁	ㅣ —	ㅣ ン 彡 — 彐	ㅣ 刂, 丷 刂 — 直	ㅣ 今 七 —
	ㅣ — 人	ㅣ —	ㅣ 彡 — 白	
—	ㅣ 亡	ㅣ 彡 ホ —	ㅣ	—
—	ㅣ	ㅣ 彐 十 — X 乃		

斜線, 逆斜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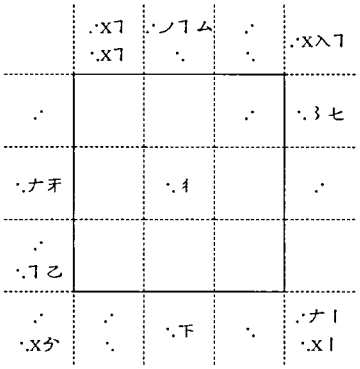
/ナ今ミ \X ミ	/ \X ㄱ	/ノ今	\X 尸	
	/	/口ハ \ 艹	/土 \ 彐	\
/	/人	/廾 \ 亻	\	\
	/刂ㄱ \刀	/ \ 勹	\	
	/	/		/ナ亡七 \

2) 지금까지 알려진 周本『華嚴經』點吐口訣 資料들은 卷次가 달라도 點圖는 大體로 一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微細한 差異가 있는 듯하다. 例를 들어 使動의 '丷刂'에 該當하는 點吐가 卷36에서는 24(|)인 데 比해 다른 卷次에서는 大槪 4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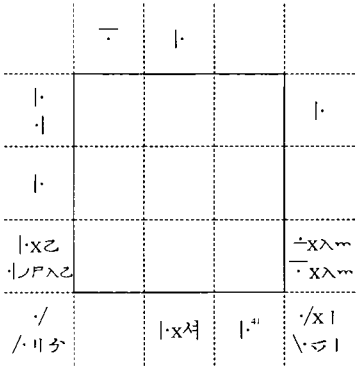
垂直 雙點, 水平 雙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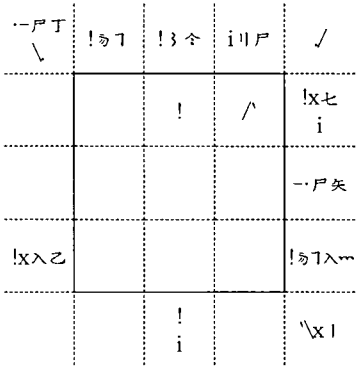
斜線 雙點, 逆斜線 雙點



눈썹



느낌標



이제부터는 構文 類型別로 點吐口訣 資料인 周本『華嚴經』卷36과 字吐口訣 資料인『華嚴經』卷14 및『華嚴經疏』卷35의 對應 樣相을 살펴보겠다.

---

3) 이 點吐의 位置는 21이라기보다는 21과 31의 中間 程度 된다. 그래도 31(··)과는 辨別되는 듯하다.

4) 이 點吐는 '雖'字가 이끄는 讓步節의 끝에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字吐에 對應되는지는 未詳이다.

2. '爲N' 構文

佛經에는 "N을 爲하여"라는 의미의 '爲N' 構文이 자주 登場한다. 字吐 釋讀口訣에서 이 構文의 懸吐 樣相은 다음과 같다.

(1) a. 若其願力得自在 普隨諸趣而 身乙 現ㄱㅂㄷㅅㄱ 則 能 衆ㅋ {爲}ㅣ 說法ㅅ令ㅊ 時ㅣ十 音聲ㅣ 類乙 隨ㄱㅅㄷㅁ 難ㅣ 思議ㅅㄲㅂㄲㅎ <華嚴13:13-14>[5]

b. 普ㅣ 衆生ㅋ {爲}ㅣ 饒益乙 作ㅅㅏㅎ <華嚴17:20-23>

c. 是ㅣㅊㅅㄱ 時十 菩薩ㄱ 工匠ㅣㄷ{爲}ㅅ乙ㅅㅎ 之ㅋ {爲}ㅣ ㅎ 種種ㅊ 業乙 示現ㅅㄷㅁ <華嚴19:13>

d. 其ㅋ {爲}ㅣ 方便乙ㅱ 妙法乙 說ㅣ 悉ㅣ 得ㅣㅈ 眞實諦乙 解ㅅ{令}ㅣㄱㄱㅣㅁ <華嚴20:07>

e. 我ㄱ 當ㅅ 發意ㅅㅣㅈ 多聞藏乙 持ㅅㅣㅅ 阿耨多羅三藐三菩提乙 證ㅅㅣㅈ 諸ㄱ 衆生ㅋ {爲}ㄴ 眞實法乙 說ㄱㅊㅣㅊㅣ <華疏09:01-09:03>

f. 一切衆生ㅋ {爲}ㄴ 一切 佛ㅂ 神力乙 現ㄱㅣ 敎化調伏ㅅㅣㅈ <華疏20:01-20:02>

g. 廣ㅣ 衆生ㅋ {爲}ㄴ 諸ㄱ 法乙 演說ㅅㄷㅁ <華疏24:18-19>

h. 法ㅊ 光明乙 以ㅣ 廣ㅣ 衆生ㅋ {爲}ㄴ {於}法乙 演說ㅅㄷㅅㅱ ㅣㅏㅣ <華疏25:14-15>

『華嚴經』 卷14에서는 'Nㅋ {爲}ㅣ' 또는 'Nㅋ {爲}ㅣㅎ'으로 나타나고

---

5) 用例의 出典은 <文獻名 卷次, 張次:行次>와 같은 方式으로 提示한다. 文獻名 略號는 다음과 같다.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周本『華嚴經』 卷6, 22, 36, 57: 周本華嚴06, 22, 36, 57
『華嚴經』 卷14: 華嚴 『華嚴經疏』 卷35: 華疏 『合部金光明經』 卷3: 金光
『舊譯仁王經』 卷上: 舊仁 『瑜伽師地論』 卷20: 瑜伽

『華嚴經疏』 卷35에서는 'N ᄒᆞ {爲}三'으로 나타나고 있다. 點吐口訣 資料인 周本 『華嚴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a. 佛[33(·)] 爲我[23(-),43(·)] 出興[43(ㅣ)] <周本華嚴36, 01:09>
b. 我[33(·)] 爲佛子[23(-),43(·)] 已[43(·)] 宣說[34(·),55(ᄀᆞᆫ)] <周本華嚴36, 07:01>
c. 我[33(·)] 今[12(:)] 爲彼一切衆生[23(-),43(·)] 修行福智[25(·)] 助道[25(·)]之 法[41(·),13(··)] <周本華嚴36, 09:24-10:01>
d. 名爲爲他[23(-),43(·)] 勤[25(·)] 修[25(i)] 者[11(·)] <周本華嚴36, 10:17-18>
e. 我[33(·)] 以種種[25(·)] 方便[25(·)] 力[41(·),43(ㅣ)] 爲諸[33(·)] 佛子[23(-),43(·)] 宣說[44(·)] 竟[34(·),55(ᄀᆞᆫ)] <周本華嚴36, 15:03>

한결같이 '爲'의 目的語 뒤에 23 位置의 水平線과 43 位置의 單點이 記入되어 있다. 이 중 23(-)은 다음과 같은 例를 보면 屬格 助詞에 該當하므로, 字吐 'ᄒᆞ'에 對應되는 것으로 보인다.

(3) a. 如是[12(··)] 智者[23(-)] 諸[33(·)] 地[25(·)] 義[33(·)] 於百[33(·)] 千[33(·)] 劫[53(·)]{53(-)} 甚[43(·)] 難[24(ㅣ),43(·)] 得[41(.·),31(ㅣ·)] <周本華嚴36, 01:10>
b. 願[15(·)] 更[34(ㅣ)] 演說聰慧者[23(-)] 後地[53(·),25(ㅣ·)] 決定[12(:)] 無餘道[41(·),43(ㅣ)] <周本華嚴36, 01:12>

그렇다면 43(·)이 字吐 'ᄒᆞ' 또는 'ᄒᆞᄉᆞᆷ' 또는 '三'에 對應된다고 推論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살펴볼 'V已' 構文의 懸吐 樣相을 考慮할 때 43(·)은 'ᄒᆞ'에 對應된다고 結論짓게 된다.

3. 'V已' 構文

"V하고 나서", "V하고 난 뒤에"의 意味를 갖는 'V已' 構文은 字吐釋讀口訣에서 다음과 같은 懸吐 樣相을 보인다.

(4) a. 爾時十 文殊師利菩薩ㄱ 無濁亂淸淨行ㄴ 大功德乙 說尸 已ㅣㅅ ㅁ 菩提心ㄴ 功德乙 顯示ㅅ{欲}ㅅㅅㄷ尸ㅅㅠ <華嚴08:20-21>

b. 示ㄲㅋㄱ 所ㄴ 苦行火ㄴㅂ尸ㅅㄱ 世ㄲ十 堪ㄲ矣ㅅㅋ仝 靡ㄴ ㄲㅅㅋㅎ 彼乙 見ㄲ尸 已ㅣㅅㅁ 皆ㄴ 調伏 令ㄲㅁㅂㅁ <華嚴20:05>

c. {是}ㄲ 念乙 作尸 已ㅣㅅㅁㅅㄱ <華疏12:03-04>

d. {是}ㄲ 念乙 作尸 已ㅣㅅㅁㅂㄱ <華疏12:18>, <華疏13:10>

e. 聞尸 已ㅣㅅㅁㅂㄱ <華疏13:02>, <華疏15:07>

f. {是}ㄲ 觀乙 作ㅅ尸 已ㅣㅅㅁㅅㄱ <華疏16:09>

g. {此}ㄲ 陀羅尼乙 得尸 已ㅣㅅㅋㅅㄱ <華疏25:14>

'已'字 앞의 動詞에는 動名詞 語尾 '-尸'이 結合되고 '已'字에는 主로 'ㅣㅅㅁ'가 結合되는데 그 뒤에 'ㅂㄱ' 또는 'ㅅㄱ'이 다시 結合도 한다. 또한 (4g)에서 보듯이 'ㅅㅁ' 대신 'ㅅㅋ'가 使用되기도 한다. 이제 點吐 資料의 例를 보자.

(5) a. 佛子[34(ㅣ)] 菩薩摩訶薩[24(ㅣ)] 第三地[41(·)] 善[24(·)] 淸淨[14(:)] 已[43(·),34(·)] <周本華嚴36, 01:16-17>

b. 於彼佛[35(·)] 所[53(·)] 恭敬[43(ㅣ)] 聽法[41(·),22(·)] 聞[44(·)] 已[43(·),34(·)] 受持[22(·)] 具足[34(ㅣ)] 修行[22(·),52(·)] <周本華嚴36, 04:15-16>

c. 得是法[41(·),44(·)] 已[43(·),23(ㅣ),21(:)] 增慈愍[41(·),24(ㅣ),53(!)] <周本華嚴36, 05:22>

d. 如是[24(·)] 無量[33(·)] 諸[33(·)] 天女[33(·)] 發此[24(ㅣ)] 言辭[41(·),43(ㅣ)] 佈讚[44(·)] 已[43(·),34(·),12(:)] <周本華嚴36, 07:18>

e. 佛子[34(ㅣ)] 菩薩摩訶薩[24(ㅣ)] 第四[25(·)] 地[25(·)] 所行[25(·)] 道[41(·)] 善[24(·)] 圓滿[24(ㅣ)?,44(·)] 已[43(·),23(/)] <周本華嚴36, 07:22-23>

f. 佛子[34(ㅣ)] 此菩薩摩訶薩[33(·)] 得如是[24(·),21(:)] 諸[33(·)] 諦[25(·)] 智[41(·)?,44(·)] 已[43(·),23(ㅣ),21(:)] <周本華嚴36, 09:04-05>

g. 於諸[33(·)] 佛[35(·)] 所[53(·)] 恭敬[43(ㅣ)] 聽法[41(·),22(·)] 聞[44(·)] 已[43(·),34(·),12(:)] 受持[22(·)] 隨力[41(·),24(\)] 修行[22(·),52(·)] <周本華嚴36, 12:04-05>

h. 旣[43(·)] 出家[44(·)] 已[43(·),23(ㅣ),21(:)] 又[33(·)] 更[34(ㅣ)] 聞法[41(·),34(·)] 得陀羅尼[41(·),43(ㅣ)] <周本華嚴36, 12:05-06>

i. 旣[43(·)] 觀諦[41(·),44(·)] 已[43(·),34(·),21(:)] 知有爲[44(·)] 體性[24(ㅣ)] 虛[22(·)] 僞[22(·)] 無堅實[21(·.),41(··),51(·)] <周本華嚴36, 13:24>

j. 如是[24(·)] 知[44(·)] 已[43(·),23(ㅣ),21(:)] 勤[25(·)] 精進[43(ㅣ)] <周本華嚴36, 14:08>

'已'字 앞의 動詞에 例外 없이 44(·)이 記入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字吐 'ㄷ'에 對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已'字에는 例外 없이 43(·)이 記入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字吐 'ᄋᆞ'에 對應된다. 그 뒤에는 34(·)[5a, b, d, g, i], 23(ㅣ)[5c, f, h, j], 23(/)[5e]이 系列關係를 이룬다. 字吐口訣 資料와의 對應을 考慮하면, 이 셋을 'ㅇㅗ' 및 'ㅇㅕ'와 關聯지을 수 있다.

'已'字에는 이 두 點吐만 있는 경우도 있고(5a, b, e), 거기에 덧붙여 12(:)이 있는 경우도 있다(5c, d, f, g, h, i, j). 이 12(:)은 字吐의 'ㅇ

ㄱ' 또는 'ㅅㄱ'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副詞 '今'의 懸吐 樣相에서도 드러난다. 字吐口訣 資料에서 副詞 '今'에는 'ᄂᆞㄱ' 또는 'ㅅㄱ'이 결합되는데,[6] 周本『華嚴經』의 경우 副詞 '今'에 어김없이 12(:)이 記入되어 있는 것이다.『華嚴經』系統의 資料에 限定해서 말한다면, 12(:)은 'ᄂᆞㄱ'에 對應된다고 할 수 있다.

34(·), 23(ㅣ), 23(/)의 세 點吐가 字吐의 'ᄂᆞㅁ', 'ᄂᆞᄋᆞ'와 어떻게 關聯되는지를 살펴보자. 字吐口訣에서 '已ᄒᆞXY'의 Y 位置에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 X 位置에는 'ᄂᆞㅁ'만 나타난다. X 位置에 'ᄂᆞᄋᆞ'가 올 때에는 거의 항상 그 뒤에 'ᄂᆞㄱ'이나 'ㅅㄱ', 'ᄉᆞ' 등이 結合된다. 點吐口訣에서 '已ᄒᆞXY'의 Y 位置에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 X 位置에는 34(·)이나 23(/)이 온다. X 位置에 23(ㅣ)이 올 때에는 항상 그 뒤에 21(:)이 結合된다. 이 事實을 考慮하면, 23(ㅣ)은 'ᄂᆞᄋᆞ'에 對應되고 34(·)과 23(/)은 'ᄂᆞㅁ'에 對應된다고 推論할 수 있다.[7]

事實, 'ᄋᆞ'와 'ㅁ'는 連結語尾로서 매우 비슷한 機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뒤 節의 意味 關係만 가지고서 어느 點吐가 'ᄋᆞ'에 該當하고 어느 點吐가 'ㅁ'에 該當하는지 區別해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V已' 構文 같은 특수한 構文에서는 懸吐 樣相이 매우 特徵的이기 때문에 그런 區別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字吐 釋讀口訣 資料에서 一般的인 連結語尾로서는 'ㅁ'보다 'ᄋᆞ'의 頻度가 훨씬 높다. 그런데 'V已' 構文에서는『華嚴經』系統에 한정한다면 '已ᄒᆞᄂᆞᄋᆞ~'보다 '已ᄒᆞᄂᆞㅁ~'의 頻度가 훨씬 높다. 點吐口訣 資料인 周本『華嚴經』에서 一般的인 連結語尾로서는 34(·)이나 23(/)보다 23(ㅣ)의 頻度가 훨씬 높다.

---

6) 좀 더 精密하게 記述하자면,『華嚴經』과『華嚴經疏』의 경우 'ᄂᆞㄱ'(ᄒᆞᆫ)이 結合되고『瑜伽師地論』과『金光明經』의 경우 'ㅅㄱ'(ᄌᆞ), 'ᄇᆞ'(ᄌᆞ) 또는 'ㅅ'(ㄱ)이 結合되며『舊譯仁王經』에는 'ᄂᆞㄱ' 또는 'ㅅ'이 結合된다.

7) 더 正確하게 말하자면, 23(ㅣ)은 'ᄋᆞ'에, 34(·)과 23(/)은 'ㅁ'에 對應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ᄂᆞ'는 그 앞에 오는 用言의 訓讀/音讀 與否 등 文脈에 따라 隨意的으로 補充되는 要素로 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런데 'V已' 構文에서는 23(|)보다 34(·)의 頻度가 더 높다. 이러한 頻度 情報도 23(|)을 'ㅈ'와 對應시키고 34(·)을 'ㅁ'와 對應시키는 本考의 見解에 符合된다.[8]

4. 細目 列擧 構文

佛經에는 "X에는 n 가지가 있다. 그 n 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A와 B와 C와 …… 等이다"와 같은 形式의 構文이 자주 登場한다. 口訣 資料에서 이런 構文의 懸吐 樣相은 매우 特徵的이기 때문에, 點吐口訣과 字吐口訣의 對應 樣相을 살피기에 매우 좋은 資料가 된다. 字吐口訣의 例를 먼저 보자.

(6) a. {此}ㅣ 慧無盡藏ㅈ十 十尸 種ㄴ 不可盡 有ㄴㄱ入ㅁ 故ㅈ 說尸 無盡ㅅ {爲}ㅅ未ナㅣ 何ㅁ{等}ㅣㅅㄱㄹ 十ㅅㅅ仝ㅁ{爲}ㅅナ未尸入ㄱ 謂ㅅㄱ 所ㄱ ①多聞善巧 盡ㄷㅎ 可ㄴㅅㅂ 不矢ㄱ入ㅁ{故}ㅣ分 ②善知識ㄹ 親近ㅅ尸 盡ㄷㅎ 可ㄴㅅㅂ 不矢ㄱ入ㅁ{故}ㅣ分 …… ⑩一切衆生ㅋ {爲}三 一切 佛ㄷ 神力ㄹ 現ㅁㅈ 教化調伏ㅅㅈㅎ 修行不斷 令ㅣㅁ尸 盡ㄷㅎ 可ㄴㅅㅂ 不矢ㄱ入ㅁ{故}ㅣナㅣ {是}ㅣㄹ 十尸ㅅ {爲}ㅅ未ナㅣ <華疏19:12-20:3>

b. 佛子ㅈ {此}ㅣ 十尸 種ㄴ 無盡藏ㄱ 十尸 種ㄴ 無盡ㄹ {有}ㅐㅈ 諸ㄱ 菩薩ㄹ 無上菩提ㄹ 究竟成就 令ㅣナㅎㄴㅂㅣ 何ㅁ{等}ㅣㅅㄱㄹ 十尸ㅅㅅ仝ㅁ{爲}ㅅナ未尸入ㄱ ①一切 衆生ㄹ 饒益ㅅ尸入ㅁ{故}ㅣ分 ②本願ㄹ 以ㅈ 善ㅈ 迴向ㅅ尸入ㅁ{故}ㅣ分 …… ⑩一切 法ㅋ 皆ㄴ 幻 {如}ㅈㅅㄱ入ㄹ 了ㅅ尸入ㅁ{故}ㅣナㅣ {是}ㅣㄹ {爲}ㅅㅁ尸 十尸 種ㄴ 無盡法ㅣ 能ㅈ

8) 34(·)와 'ㅁ'의 對應에 대한 또 다른 證據를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一切世間ヒ 作ノ丁 所乙 悉ミ 得ミホ 究竟 令リナ令ヒ 無盡大藏ミノホナ丨 <華疏26:11-20>

두 例의 밑줄 친 部分이 거의 同一하다. 다음으로 點吐口訣의 例를 보자.

(7) a. 佛子[34(丨)] 菩薩摩訶薩[24(丨)] 第三地[41(·)] 善[24(·)] 淸淨[14(:)] 已[43(·),34(·)] 欲入第四[25(·)] 焰慧地[53(·),32(-),24(/),33(·),12(-)] 當[23(:)] 修行十法[25(·)] 明門[41(·),55(/)] 何[24(\)] 等[41(·.)] 爲十[44(·),11(·),13(/),34(·)?,31(·.),15(·)?] 所謂[12(·), 33(·)] ①觀察衆生界[41(·),52(·)] ②觀察法界[41(·),52(·)] ③觀察世界 ④觀察虛空界 ⑤觀察識界 ⑥觀察欲界 ⑦觀察色界 ⑧觀察無色界 ⑨觀察廣心信解界 ⑩觀察大心信解界[41(·),35(-·),55(.·)] <周本華嚴36, 01:16-21>

b. 佛子[34(丨)] 菩薩[24(丨)] 住此焰慧地[53(·),,24(/),12(-),33(·)] 則[24(·)] 能[24(·)] 以十[44(·)] 種[25(·)] 智[41(·),34(丨)] 成熟法[41(·),23(丨),45(丆)]故[24(.·)] 得彼內法[41(·),43(丨)] 生如來[44(·)] 家[53(·),55(/)] 何[24(\)]等[41(·.)] 爲十[44(·),11(·),13(/),34(·),31(·.),15(·)] 所謂[12(·),33(·)] ①深[33(·)] 心[42(丨)] 不退[44(·),45(:)] 故[51(/·)] …… ⑩觀無所有盡[41(·),45(:)] 故[24(·),24(丨),55(.·)] 是[41(·)] 爲十[11(·),31(··),55(.·)] <周本華嚴36, 01:23-02:05>

c. 佛子[34(丨)] 菩薩摩訶薩[24(丨)] 第四[25(·)] 地[25(·)] 所行[25(·)] 道[41(·)] 善[24(·)] 圓滿[24(丨)?,44(·)] 已[43(·),23(/)] 欲入第五[25(·)] 難勝地[53(·),32(-),24(/),12(-),33(·)] 當[23(:)] 以十[44(·)] 種[25(·)] 平等[12(:),21(-),53(丨),25(丨)] 淸淨心[41(·),43(丨)] 趣入[55(/)] 何等[41(·.)] 爲十[11(·),13(/),34(·),31(·.),15(·)] 所謂[12(·),33(·)] ①於過去[25(·)] 佛法平等[12(:),53(丨),25(丨)] 淸淨心[11(·)] …… ⑩敎化一切衆生[41(·),14(·)] 平等[12(:),53(丨),25(丨)] 淸淨心[11(·),31(··),55(.·)] <周本華嚴36, 07:22-08:06>

(7)에 提示된 세 예가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6)의 字吐口訣의 例와도 거의 完全히 平行하므로, 이들의 對應 關係를 考察함으로써 點吐의 解讀을 摸索할 수 있다. 우선, (7)의 세 例 中 (7c)에서는 '何'字에 아무것도 記入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例에는 24(\)이 記入되어 있는데, 이것은 (6)을 考慮할 때 字吐 'ㅱ'에 對應된다고 할 수 있다.

24(\)와 'ㅱ'의 對應을 뒷받침하는 論據는 이 外에도 많이 있다. "N을 따라서"를 意味하는 '隨N' 構文에 字吐口訣의 경우 'Nㄹ 隨ㅱ'와 같이 懸吐되는데, 周本『華嚴經』에서는 N 끝에 41(·)과 24(\)이 記入된다. 41(·)은 對格 助詞 'ㄹ'에 對應됨이 分明하므로, 여기서도 24(\)은 'ㅱ'에 對應되는 것이다. "즐겨" 程度의 意味를 갖는 副詞 '樂'의 경우도 字吐口訣에서는 'ㅱ'가 懸吐되고 周本『華嚴經』에서는 24(\)이 懸吐된다.

다음으로 '等'字에 記入된 吐를 보면, 字吐口訣에서는 'ㅣㅅㄱㄹ'이, 周本『華嚴經』에서는 41(·.)이 記入되어 있다. 'ㅣㅅㄱㄹ'에서 'ㅣ'는 이른바 全訓讀表記의 例로서 '等'字의 訓에 해당한다. 이 경우 字吐 釋讀口訣 資料들 中『華嚴經』系統에서는 大槪 'ㅣ'가 表記되지만 그 밖의 資料에서는 'ㅣ'가 表記되지 않는다. 이런 事實을 考慮하면, 41(·.)은 'ㅣㅅㄱㄹ'에 對應될 可能性도 있고 'ㅅㄱㄹ'에 對應될 可能性도 있다. 41(·)이 'ㄹ'에 對應된다는 事實, 그리고 特定 位置의 複合點吐는 그 位置의 單點에 對應되는 字吐를 包含하는 複合吐에 對應되는 傾向이 있음을 考慮할 때, 두 可能性 모두 認定할 수 있지만, 41(·.)이 '(ㅅ)ㄱㄹ'에 對應된다고 보는 것이 더 安全한 假定이라고 생각된다.

'十'字에는 字吐 資料에서 'ㄲ'이 記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ㄲ'은 末音添記로 보이므로 隨意的으로 記入되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7)에서도 '十'字에 44(·)이 記入되어 있는 것도 있고(7a, b)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7c), 字吐 資料의 樣相과

同一하다. 44(·)과 'ㅡ'의 對應을 뒷받침하는 證據는 많이 있다. 否定文에서 '不ㅅㅡ'(안돌ᄒᆞ-) 앞의 動名詞 語尾 '-ㅡ', '菩薩'의 屬格 '-ㅡ'에 該當하는 點吐가 周本『華嚴經』에서 44(·)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字吐의 'ㅣ'와 點吐의 11(·)이 對應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ㅣ'는 (6)에서처럼 "-(이)라고"의 意味를 갖는 助詞로서의 用法 外에 名詞句를 羅列할 때도 使用되는데, 이것은 點吐 11(·)도 마찬가지이다. (8)이 바로 그런 例이다.

(8) 修行精進根[11(·)] 念根[11(·)] 定根[11(·)] 慧根[11(·),41(:),13(··)] <周本華嚴36, 02:20-21>

다음으로는 'ㅅᄉᆞ'와 13(/)의 對應을 想定할 수 있다. 이 對應을 뒷받침하는 證據도 많이 있는데, 代表的인 것은 名詞句를 助詞 'ㅣ'로 羅列한 뒤 이것들을 總括하는 表現을 들 수 있다.

(9) a. 衆生ㅋ 形相ㄱ 各ㅂ 不ᄃᆞ 同ㅢᄀᆞ 行業ㅣ 音聲ㅣ ㅅᄉᆞ 亦ㄲ 量ㅢ 無ㄱㄹ <華嚴15:01>
b. 十方ㅌ 一切 諸ㄱ 妓樂ㅢㄱ 鐘ㅣ 鼓ㅣ 琴ㅣ 瑟ㅣ ㅅᄉᆞㄱ 一ㄱ 類 非ㅿㄱㅣ <華嚴15:24>
c. 慈ㅣ 悲ㅣ 喜ㅣ 捨ㅣ ㅅᄉᆞㄹ 圓滿ㅅᄀᆞ <華嚴01:23>

(10) a. 大地[11(·)] 海水[11(·),13(/)] 皆[25(·)?] 震動[52(·)] <周本華嚴36, 01:06>
b. 我[11(·)] 人[11(·)] 衆生[11(·)] 壽命[11(·),13(/),32(-)] 蘊[11(·)] 界[11(·)] 處[11(·),13(/),32(-),45(·)] 所起[12(:)] <周本華嚴36, 03:13-14>

助詞 'ㅣ'로 名詞句를 羅列한 뒤 이것들을 總括할 때 字吐口訣에서는 항상 'ㅅᄉᆞ'가 使用되며, 이 'ㅅᄉᆞ' 뒤에 다른 助詞가 결합된다. (10)을

보면 11(·)이 'ㅣ'에, 13(/)이 'ㅅᄉ'에 對應됨을 금방 알 수 있다.[9]

字吐口訣에서는 이 構文에서 'ㅅᄉ' 뒤에 疑問 助詞 'ㅁ'가 항상 結合된다. 點吐 資料에서 이 'ㅁ'에 對應되는 것은 34(·)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34(·)과 23(ㅣ) 中 어느 것이 'ㅁ'이고 어느 것이 'ㅣ'인지를 論議할 때 34(·)이 'ㅁ'에 對應된다고 보았었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證據를 얻게 되는 것이다.

字吐의 '何ᄀᆞ {等}ㅣᄂᆞᆫᄀᆞᆯ 十ㅣᄉᆞᄉᆞᆷㅁ {爲}ᄂᆞᆫᄂᆞᆨᄎᆞᆨᄂᆞᆫᄀᆞ'과 點吐의 '何[24(\)] 等[41(·.)] 爲十[11(·), 13(/), 34(·), 31(·.), 15(·)]'을 比較하면 맨 끝의 'ᄂᆞᆫᄀᆞ'과 15(·)의 對應을 推測할 수 있다. 이 對應을 뒷받침하는 證據도 많이 있다.

(11) a. {是}ㅣ {如}ᄒᆞᆫ 邊ᄎᆞ 無ᄀᆞ 大功德ᄀᆞᆯ 我ᄀᆞ 今ᄂᆞᆫᄀᆞ {於}中ᄒᆞᆫ十 ᄂᆞᆫᄒᆞᆫ 少分ᄉᆞᄉᆞᆷᄀᆞᆯ 說ᄀᆞᄎᆞᆷ 譬ᄂᆞᆫᄀᆞ 鳥足ᄆᆞᆷ 履ᄀᆞᆫᄀᆞ 所ᄂᆡ 空 {如}ᄒᆞᆫᄂᆞᆫᄀᆞᆯᄂᆞᆫᄀᆞᆺ <華嚴09:08-09>

b. {是}ㅣ 故ᄆᆞᆷ 依行ᄀᆞᆯ 次第ᄀᆞᆯ 說ᄀᆞᄉᆞᆺᄒᆞᆫ十 信樂ㅣᄒᆞᆯ 最勝ᄂᆞᆫᄒᆞᆫᄉᆞ 甚ㅣ 難ㅣᄒᆞᆯ 得ᄀᆞᄒᆞᆨᄀᆞᆫᄋᆞᆨ 譬ᄂᆞᆫᄀᆞ 一切 世間ᄂᆡ 中ᄒᆞᆫ十 {而ᄆᆞ} 隨意妙寶珠ㅣ 有ᄀᆞ {如}ᄒᆞᆫᄂᆞᆫᄀᆞ ㅣㅣ <華嚴10:08-09>

c. 譬ᄂᆞᆫᄀᆞ 蓮華ㅣ 水ᄒᆞᆫ十 著 不ᄂᆞᆷ {如}ᄒᆞᆫ 是 {如}ᄒᆞᆫ 世ㅣ十 在ᄂᆞᆫᄒᆞᆫᄉᆞ 深信 令ㅣᄂᆞᆨᄒᆞᆫᄂᆡ <華嚴19:05>

d. 一切 世間ᄒᆞᆫᄂᆡ 衆ᄀᆞ 技術ᄀᆞᆯᄂᆞᆷᄂᆞᆷ 譬ᄂᆞᆫᄀᆞ 幻師 {如}ᄒᆞᆫᄂᆞᆫᄒᆞᆫᄉᆞ 現ᄀᆞᆷ 不ᄂᆞᆷᄃᆞᆼᄂᆞᆷ 無ᄂᆞᆨ <華嚴19:07>

(12) a. 佛子[34(ㅣ)] 譬[15(·)] 如金師[24(ㅣ)] 鍊治眞金[41(·),23(ㅣ)] 作莊嚴具[41(·),23(ㅣ),53(··)] 餘[33(·)] 所有[33(·)] 金[23(-)] 皆[25(·)] 不能及[25(·),22(-),24(ㅣ),35(·),14(:),31(··),55(/)] <周本 華嚴36, 04:18-19>

b. 譬[15(·)] 如妙寶[24(ㅣ)] 無能[35(·)] 壞[23(ㅣ),13(ㅣ),33(·),24(·),

9) 그런데 'ㅅᄉ' 뒤에 對格 助詞 'ᄀᆞᆯ'이 結合될 만한 環境에서는 13(/)도 41(·)도 나타나지 않고 41(:)이 나타난다. 위의 (8)이 그러한 예이다. 이로써 41(:)이 'ㅅᄉᆞᆷᄀᆞᆯ'에 對應됨을 짐작할 수 있다.

51(·.)] <周本華嚴36, 06:18-19>

c. 大牟尼尊[24(|)] 現於世[53(·),13(|)] 譬[15(·)] 如須彌[24(|)] 出巨海[53(·),12(:),12(!),24(·),51(·/)] <周本華嚴36, 07:15>

d. 佛子[34(|)] 譬[15(·)] 如眞金[41(·)] 以碑喋[41(·),34(|)] 磨瑩[23(|),53(··)] 轉[25(·)] 更[34(|)] 明淨[34(\),24(·)] <周本華嚴36, 12:08-09>

e. 譬[15(·)] 如星宿[33(·)] 在虛空[53(·),12(:),11(·)] 風力[23(-)] 所持[24(|),12(·),51(·)] 無損動[44(·),25(·),33(·),24(·),52(·)] <周本華嚴36, 14:20>

(13) a. 菩薩ㅣ 在家ㅅㄱㅣㅓㄱ 當ㅎ 願口尸入ㄱ 衆生ㄱ 家性ㄹ 空ㅅㄱ入乙 知ㄴㅈ 其 逼迫乙 免ᄒᆞᆫ立ㅅㅅ丌ㅎ <華嚴02:19>

b. 父母乙 孝事ㅅ丈ㄱㅣㅓㄱ 當ㅎ 願入ㄱ 衆生ㄱ 善ᄒᆞᆫ {於}佛乙 事ㅎ白ㄴㅈ 一切乙 護ㅅㄹ 養ㅅㄹㅅᄒᆞᆫ立 <華嚴02:19>

c. 菩薩ㄱ 勤七 大悲行乙 修ㄴㅈ 願入ㄱ 一切乙 度ㅣㅁㅎㄹㅅ尸ㅁ 果ᄐ尸 不ㅅ尸丁ㅅ尸 無ㅣㅅㄴㅈㅓ丌ㅛ <華嚴14:09-12>

d. 我ㄹ 今ᄒᆞᆫ {此}ㅣ 有七ㄱ 所七 飮食乙 受ㅏㅋㄱㅅㄱ 願口尸入ㄱ 衆生乙 普ㅣ 充飽ㅅ尸入乙 得ㅣ 令ㅣㅋ禾ㄴㅈ七ㅣㅅㅓㄴㅈ <華疏09:15-16>

e. 今ㅅㄱ {此}ㅣ 食乙 以ㄴ 衆生ㄹ十 惠施ㅅㅁㅎ 願口尸入ㄱ 我ㄱ {於}身ㄴㅈ十 永ㅊ 貪著乙 斷ㅅ禾ㄴㅈ七ㅣㅅㅓ尸入乙 {是}ㅣ乙 名下 分減施ㅣㅅ禾ㅓㅣ <華疏09:18-20>

f. 唯ㅎ 願口尸入ㄱ 大王ㅣㅎㄱㅅㄱ 更ㄴ 籌量ㅅㄴㅈㅎ 顧惜ㅅ尸所乙 {有}斗尸 莫七ㅎ下ㅎ 但ㅎ 慈念ㅅ尸入乙 以ㄴ 見ㄴㅈ {於} 我ㄹ十 施ㅅㅁㅎㅎ立ㅅㅊㄱㅣㅓ十 <華疏10:20-11:01>

(14) a. 願[15(·)] 更[34(|)] 演說聰慧者[23(-)] 後地[53(·),25(|·)] 決定[12(:)] 無餘道[41(·),43(|)] 利益一切諸[33(·)] 天人[41(·),23(/),53(|·)] <周本華嚴36, 01:12-13>

b. 所有[33(·),25(·)] 行相[41(·)] 願[15(·)] 宣說[23(/),53(|·),52(|),45(-),55(·.)] <周本華嚴36, 01:15>

c. 第五[25(·)] 地[25(·)] 中[25(·.)] 諸行相[41(·)] 唯[23(:)] 願

[15(·)] 佛子[24(|),15(.·)] 爲[24(\)] 宣說[52(|),45(-),23(/),53(|·), 55(·.)] <周本華嚴36, 07:21>

d. 願[15(·)] 得十力[41(·),43(|)] 救衆生[41(·),55(\·),51(·.)] <周本華嚴36, 14:23>

字吐 資料의 '譬ㅅㄱ'과 點吐 資料의 '譬[15(·)]'이 完全히 一致하고 있고, '願'字의 경우 字吐 資料에서 'ㅁㄹㅅㄱ'이 懸吐되기도 하고 'ㅅㄱ'만 懸吐되기도 하는데 點吐 資料에서는 항상 15(·)이 記入되어 있다. 이 事實들을 綜合하면 15(·)이 'ㅅㄱ'에 對應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何[24(\)] 等[41(·.)] 爲十[11(·), 13(/), 34(·), 31(·.), 15(·)]'에서 이제 31(·.)만 남는데, 이것은 表面的으로 보면 '(ㅅ)ㅏㅎㄹ'에 對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點吐에 너무 複雜한 字吐를 對應시키는 데 無理가 있고, 또 31(··)이 'ㅅㅎ'에 對應된다는 點을 考慮하면,[10] 31(·.)이 'ㅏㅎ'에 對應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ㅅㅏㅎㄹㅅㄱ'의 'ㄹ'은 省略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十' 字의 末音添記로 보았던 44(·)이 이 'ㄹ'에 該當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6a)에서 '何ㅁ {等}ㅣㅅㄱㄹ 十ㅣㅅㅎㅁㅁ {爲}ㅅㅏㅎㄹㅅㄱ' 바로 뒤에 '謂ㅅㄱ 所ㄱ'이 나오는데 (7)의 세 例 모두 '所謂'에 12(·)과 33(·)이 記入되어 있다. 33(·)이 'ㄱ'에 對應되는 것은 『華嚴經』 系統뿐 아니라 點吐 資料 『瑜伽師地論』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硏究者들 사이에 大體的인 同議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12(·)이 'ㅅㄱ'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大槪 單點은 가장 單純한 字吐에 對應된다는 事實을 考慮하면 12(·) 역시 'ㄱ'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a)와 (7b)에서는 10 가지의 項目을 列擧한 뒤에 그것들을 總括하

10) 이에 對해서는 後述할 것이다.

는 表現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完全히 같은 文章으로 되어 있다. (6a)의 '{是}ㄲㄹ 十尸ㅅ {爲}ノ未ナㅣ'와 (7b)의 '是[41(·)] 爲十[11(·), 31(··),55(.·)]'를 比較하면, (7b)의 '十'字에 末音添記가 없다는 點과 '是'字에 全訓讀 表記 'ㄲ'가 없다는 點을 除外하면 構成이 完全히 同一하다. 여기서 41(·)='ㄹ', 11(·)='ㅅ', 31(··)='ノ未', 55(.·)='ナㅣ'의 對應 關係를 얻을 수 있다.

5. '等' 構文

漢文 原文에서 名詞句가 羅列된 뒤 '等'字가 나올 때에도 懸吐 樣相이 特徵的이다.

(15) a. 一切 勝妙功德ㄹ 獲ㄴ亦 一切 世間ㄴㅌ 諸ㄱ 天ㅅ 魔ㅅ 梵ㅅ 沙門ㅅ 婆羅門ㅅ 乾闥婆ㅅ 阿修羅ㅅノ尸 {等}ㅣノㄱㄲㅅ 及ㅌ 以ㄴ 一切 聲門ㅅ 緣覺ㅅノ今ㅋ 動尸 不能ㄲ矢ノ尸 所ㄲ去ナㅋㅌㅣ <華嚴08:16-18>

b. 衆生ㅋ 苦ㅅ 樂ㅅ 利ㅅ 衰ㅅノ尸 {等}ㅣノㄱ 一切 世間ㅌ 作ノトㅋㄱ 所ㅌ 法ㄴ十 <華嚴18:10>

c. 呪術ㅅ 藥草ㅅノ尸 {等}ㅣノㄱ 衆ㄱ 論ㄲㄱ <華嚴19:15>

d. 根ㅅ 果ㅅノ尸 {等}ㅣノㄱㄹ 食ノトㅋㄱ入ㄹ 悉ㄴ 示ノ寺 行ノ寺ノㄴ <華嚴20:01>

e. 菩薩ㄱ {是}ㄲ {如}支ノ尸 {等}ㅣノㄱ 量ㄲ 無ㅌㄱ 慧藏ㄹ 成就ノナㄴ <華疏19:09-10>

(16) a. 於如是[24(·),14(:)] 等[12(:),53(ㅣ),23(ㅣ)] 一切[25(:)] 皆[25(·)] 離[51(·.)] <周本華嚴36, 03:15-16>

b. 生死[11(·)?] 涅槃[11(·)] 刹[11(·),14(:)] 等[12(:)] 業[41(·), 52(·)] <周本華嚴36, 05:20>

c. 身見[41(·)] 爲首[43(·),12(:)] 六十二[11(·)] 我[11(·)] 及[25(·)] 我所[11(·),13(/),32(/)] 無量[33(·)] 種[25(·),11(·)] 蘊[11(·)] 界[11(·)] 處[11(·),14(:)] 等[12(:),32(/)] 諸[33(·)] 取著[11(·),41(:)] 此[24(ㅣ)] 四地[25(·)] 中[53(·),33(·)] 一切[25(:)] 離[51(·.)] <周本華嚴36, 06:06-07>

d. 金[11(·)] 銀[11(·)] 摩尼[11(·)] 眞珠[11(·)] 琉璃[11(·)] 螺貝[11(·)] 壁玉[11(·)] 珊瑚[11(·),14(:)] 等[12(:)] 藏[41(·)] 悉[34(ㅣ)] 知其處[41(·),43(ㅣ)] 出[23(ㅣ)] 以[34(ㅣ)] 示人[53(ㅣ),11(/·)] <周本華嚴36, 11:16-18>

e. 持戒[11(·)] 入禪[11(·)] 神通[11(·)] 無量[11(·)] 四無色[11(·)?,14(:)] 等[12(:),11(\.)] 及[25(·)] 餘[33(·)] 一切世間[25(·)]之 事[31(··)] <周本華嚴36, 11:19-20>

f. 衣服[11(·)] 臥具[11(·)] 飮食[11(·)] 湯藥[11(·),14(·)] 一切資生[41(·)] 悉[34(ㅣ)] 以[43(ㅣ)] 奉施[52(·)] <周本華嚴36, 04:12-13>

g. 布施[11(·)] 愛語[11(·)] 利行[11(·)] 同事[11(·),14(·)] 如是[12(:)] 一切諸[23(-)] 所作[14(·),25(·)] 業[33(·)] <周本華嚴36, 05: 04-05>

(15a-d)를 보면 이 構文은 'N ᄂᆞ N ᄂᆞ…… N ᄂᆞᆫᄃᆞ {等} ㅣ ᄂᆞᆫᄀᆞ'의 形式을 갖는다. 이 뒤에 列擧된 것들을 總括하는 名詞句가 올 수도 있고, 그런 名詞句 없이 바로 助詞가 結合되기도 한다. 이것과 (16b-e)를 比較하면, 11(·)='ᄂᆞ', 14(:)='ᄂᆞᆫᄃᆞ', 12(:)='ᄂᆞᆫᄀᆞ'의 對應 關係를 얻을 수 있다. (15e)와 (16a)는 名詞句가 羅列된 것은 아니지만 '如是等'이라는 同一한 原文에 懸吐된 것으로서 역시 平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24(·)='ᄋᆞᆺ', 14(:)='ᄂᆞᆫᄃᆞ', 12(:)='ᄂᆞᆫᄀᆞ'의 對應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6f, g)는 原文에 '等'字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名詞句를 11(·)으로 羅列한 뒤에 14(·)이 記入되고 그 뒤에 羅列된 것들을 總括하는 名詞句가 連結되었는데, 字吐口訣에서는 이런 경우에 'ᄂᆞᆫᄃᆞ'

또는 'ノ尸'이 온다. 12(·)이 'ㄱ', 12(:)이 'ㅅㄱ'에 對應되는 것을 參考하면, 14(·)은 '尸', 14(:)은 'ㅅ尸'에 對應되는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6. '作/爲N' 構文

'N이 되다'를 意味하는 '作/爲N' 構文은 字吐口訣 資料에서 대개 'N刂尸 {爲}入乙ㅅ-' 또는 'N {爲}刂尸入乙ㅅ-' 또는 'N刂尸入乙 作ㅅ-'와 같이 나타난다.[11]

(17) a. 云何 得ㅋ亦 一切衆生ㅋ 與ㅋ 依刂尸{爲}入乙ㅅ가 救刂尸{爲}入乙ㅅ가 …… 普導刂尸{爲}入乙ㅅ가 <華嚴02:06-07>

b. 信ㄱ 道ㅋ七 元矢支刂가 功德七 毋刂尸{爲}入乙ㅅロナㄱ <華嚴09:20>

c. 或ㅅㄱ 長者刂皿亦 邑七 中ㅋ七 主刂尸{爲}入乙ㅅ가 或ㅅㄱ 賈客刂皿 商人ㅋ 導刂尸{爲}入乙ㅅ가 或 國王ㅅ 及七 大臣刂尸{爲}入乙ㅅ가 或ㅅㄱ 良醫刂尸入乙 作ㅅㅋ亦 衆ㄱ 論乙 善支ㅅ가 或ㅅㄱ {於}曠野ㅋ十 大樹刂尸入乙 作ㅅ가 或ㅅㄱ 良藥ㅅ 衆ㄱ 寶藏ㅅノ干尸{爲}入乙ㅅ가 或ㅅㄱ 寶珠刂尸入乙 作ㅅㅋ亦 求ノ尸 所乙 隨 或ㅅㄱ 正道乙 以ㅋ 衆生ㅋ十 示刂ナ가 <華嚴19:08-11>

周本『華嚴經』에도 '作/爲N' 構文이 많이 나타난다.

(18) a. 菩薩[33(·)] 住此地[53(·),23(|),12(:)] 多[22(|)] 作須夜摩天王[14(i),41(··),52(·)] <周本華嚴36, 05:03>

b. 我[33(·)] 當[23(:)] 於一切衆生[25(·)] 中[53(·)] 爲首[14(i),

11) 이때의 '作'字도 全訓讀 表記로 볼 可能性이 있다.

41(··),52(·)] 爲勝 爲殊勝 爲妙 爲微妙 爲上 爲無上[14(i),41(··), 52(·)] 乃至[24(ㅣ)] 爲一切智智依止者[14(i),41(··),51(·.),21(··),55 (\·)] <周本華嚴36, 05:07-09>

c. 住此[53(ㅣ),23(ㅣ),12(:)] 多[22(ㅣ)] 作焰天[25(·)] 王[14(i),41(··),23(ㅣ)] <周本華嚴36, 06:20>

d. 旣[43(·)] 出家[44(·)] 已[43(·),23(ㅣ),21(:)] 又[33(·)] 更[34(ㅣ)] 聞法[41(·),34(·)] 得陀羅尼[41(·),43(ㅣ)] 爲聞持法師[14(i),41(··),52(·.)] <周本華嚴36, 12:05-06>

e. 菩薩[24(ㅣ)] 住此地[53(·),23(ㅣ),12(:)] 多[22(ㅣ)] 作兜率陀天王[14(i),41(··),52(/)] <周本華嚴36, 12:18-19>

f. 我[33(·)] 當[23(:)] 於衆生[25(·)] 中[53(·)] 爲首[14(i),41(··),52(·)] 爲勝 爲殊勝 爲妙 爲微妙 爲上 爲無上[14(i),41(··),52(·)] 乃至[24(ㅣ)] 爲一切智智依止者[14(i),41(··)?,51(·.),21(··),55(\·)] <周本華嚴36, 12:23-13:01>

g. 住此[53(ㅣ),23(ㅣ),12(:)] 多[24(ㅣ)] 作兜率[25(·)] 王[14(i),41(··),52(/)] <周本華嚴36, 14:22>

(17)과 (18)을 比較함으로써 14(i)='ㅢ尸', 41(··)='ㅅ乙'의 對應을 얻을 수 있다. 14 位置의 單點이 '尸'에 該當하므로 이 位置의 複合 點吐가 '尸'을 包含한 複合吐인 것은 매우 自然스럽다. 41 位置도 마찬가지이다.

'爲N所V' 構文은 意味上 被動 構文으로서 "N에게 V함을 當하다/입다"를 意味한다.

(19) a. 當願衆生 天人ㅋ{之} 歎仰ノ尸 所ㅢ尸{爲}ㅅ乙ノㅎ{應}ㅌンㅂ立 <華嚴07:01-05>

b. 諸ㄱ 佛矣 護念ンㅎㅋ尸 所ㅢ尸{爲}ㅅㄱンㅂ孑分 <華嚴11:02>

周本『華嚴經』에도 이와 平行한 例가 나타난다.

(20) 於生死海[25(·)] 中[53(·),43(|)] 爲覺觀[25(·)] 波濤[45(·)]之 所漂溺[12(·),14(i),41(··),12(:),55(\·),55(/)] <周本華嚴36, 09:20-21>

(19)의 경우 N이 有情物이어서 屬格 助詞 'ᄋᆞ'가 結合된 데 比해 (20)에서는 N이 無情物이어서 具格 助詞 'ᄉᆞ'가 結合된 點, 그리고 (19)에서는 V에 動名詞 語尾 'ㅁ'이 結合되었지만 (20)에서는 V에 動名詞 語尾 'ㄱ'이 結合된 點을 除外하면 構造는 完全히 平行하다. 字吐口訣 資料에서도 '爲N所V' 構文에서 N이 無情物일 때는 N에 'ᄉᆞ'가 結合되는 일이 있다.[12]

7. 命名 構文

"X를 이름하여 Y라고 한다"의 意味를 갖는 命名 構文도 懸吐 樣相이 特徵的이다.

(21) a. 有ㄱ 所ㄴ 一切 諸ㄱ 佛法ㄹ 皆ㄴ {是}ㅣ {如}ᄉᆞ 說ᄒᆞㅁᆞ 盡ㅁᆞ 不ᄉᆞㅁᆞ丁ᄂᆞㅁᆞ 無ㅣᄉᆞᄂᆞᄒᆞ 語ㄴ 境界 不思議ㅣㄱ 入ㄹ 知ᄂᆞㅁᆞ入ㄹ 是ㄹ 名下 說法三昧ㄴ 力ㅣᄂᆞᄒᆞᄂᆞㅣ <華嚴20:14-15>

b. {是}ㅣㄹ 名下 無記法ㅣᄂᆞᄒᆞᄂᆞㅣ <華疏08:18-19>

c. {是}ㅣㄹ 名下 竭盡施ㅣᄂᆞᄒᆞᄂᆞㅣ <華疏10:13>

d. {是}ㅣㄹ 名下 菩薩摩訶薩ᄆᆞ 八 第ㄴ 念藏ㅣᄂᆞᄒᆞᄂᆞㅣ <華疏23:17-18>

---

12) 다음 例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i) 尋思ᄉᆞ 擾亂ᄂᆞᄆᆞ 所ㄹ 爲ㅎᆞㄱ 入ᄉᆞ <瑜伽10:09>

e. {是}ㅐㄹ 名下 菩薩摩訶薩尸 九 第ㅌ 持藏ㅅㄴㅔㅏ <華疏 24:16>

動詞 '名'에는 大槪 'ㅏ'가 懸吐된다. 그리고 Y에 該當하는 名詞句에는 "-(이)라고"를 意味하는 助詞 'ㅅ'가 結合된다. Y가 名詞句가 아니라 動詞句일 때는 'ㄴ尸ㅜ'가 結合된다. 다음 例가 이것을 보여 준다.

(22) a. 善男子ㅎ 是ㄹ 名下 菩薩摩訶薩ㅐ 羼提檀波羅蜜ㄹ 成就ㄴ尸 ㅜㄴㅔㅓㄱㅐㅣ <金光03:10>

b. 善男子ㅎ 是ㄹ 名下 菩薩摩訶薩ㅐ 毗梨耶波羅蜜ㄹ 成就ㄴ尸 ㅜㄴㅔㅓㄱㅐㅣ <金光03:15-16>

이것을 念頭에 두고 周本『華嚴經』의 例를 보자.

(23) a. 佛子[34(ㅣ)] 是[41(·)] 名[53(·.)] 略[23(\)] 說菩薩摩訶薩 第四[25(·)] 焰慧地[41(·), 44(·), 21(·) ,31(··), 55(.·)] <周本華嚴36, 05:02-03>

b. 佛子 菩薩摩訶薩[24(ㅣ)] 住此第五[25(·)] 難勝地[53(ㅣ),24(/), 12(-),33(·)] 名[53(·.)] 爲念者[11(·),31(··),55(.·)] 不忘諸[33(·)] 法[41(·),44(·),45(÷)] 故[11(·)] 名[53(·.)] 爲智者[11(·),31(··), 55(.·)] 能[24(ㅣ),35(·)] 善[24(·)] 決了[45(÷)] 故[11(·)] <周本華嚴36, 10:08-11>

c. 佛子[34(ㅣ)] 是[41(·)] 名[53(·.)] 略[23(\)] 說菩薩摩訶薩[44(·)] 第五[25(·)] 難勝地[41(·), 44(·), 21(·),31(··), 55(.·)] <周本華嚴36, 12:17-18>

d. 名[53(·.)] 爲有念[33(/),22(·)]] 有慧[33(/),22(·),25(··)]] 者[42(ㅣ), 11(·),52(·)] 乃至[24(ㅣ)] 覺解[11(·)] 方便[11(·),25(ㅣ)?] 者[42(ㅣ), 11(·),51(·)] <周本華嚴36, 14:09>

(23b)에 나타나는 패턴을 (21)과 比較하면, 53(·.)='ㅜ', 11(·)='ㅣ', 31(··)='ノ ㅈ', 55(.·)='ナ ㅣ'의 對應 關係를 얻을 수 있다. (23d)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者'字에 'ㅣ'가 結合되기 前에 末音添記로 생각되는 42(ㅣ)이 記入되어 있는 點만 다르다. 字吐 資料에서 '者'字에 'ㅎ'이 末音添記로 記入되어 있는 例들이 있고(<華嚴18:05>, <華疏20:04>), '心'字에도 42(ㅣ)이 記入되어 있는 例들이 많음을 考慮할 때 42(ㅣ)은 'ㅎ'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a, c)는 Y가 動詞句인 경우이므로 (22)와 比較해야 한다. 여기서 44(·)='ㄱ', 21(·)='ㄱ'의 對應 關係를 알 수 있다. 44(·)='ㄱ'의 對應은 앞에서 'V已' 構文에서 살펴본 것과 一致한다.

8. 請願 構文

佛經에는 부처의 弟子가 부처에게, 또는 菩薩들끼리 서로 間에 "…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하는 式의 請願을 하는 場面이 자주 登場한다. 그 밖에도 請願을 하는 일이 자주 있다. 우선 字吐 資料를 보자.

(24) a. 仁ㅂ 亦ㅅㄱ 當ㅅ {於}{此}ㅂ 會ㄷ 中ㅇㄷㅅㅇㅅ 修行ㅅㅎㅁㄱㅌㅌ 勝功德ㄹ 演暢ㅅㅁㅅㅎ立 <華嚴08:24>

b. 時十 或ㄲ 有ナㅣ 人ㅂ 來ㅅㅇㅅ {是}ㅂ 言ㄹ 作ㅅナㄱ丁 汝ㄱ 今ㅅㄱ {有}ㅐㅅㄱ 所ㄹ 悉ㅇ 當ㅅ 我ㅋ十 與ㅅㅁㅅㅎ立 ㅅㅅㄱㅣ十 <華疏10:07-08>

c. 時十 或ㄲ 有ナㅣ 人ㅂ 來ㅅㅇㅅ 王ㅋ十 白ㅇ 言白ナㄱ丁 大王下 當ㅅ 知ㅁㅅㅎ立 …… 唯ㅅ 願ㅁㄱㅅㄱ 大王ㅂㅎㄱㅅㄱ 更ㅇ 籌量ㅅㅇㅅ 顧惜ノㄱ 所ㄹ {有}ㅐㄱ 莫ㅌㅎ下ㅅ 但ㅅ 慈念ノㄱㅅㄹ 以ㅇ 見ㅇㅅ {於} 我ㅋ十 施ㅅㅁㅅㅎ立ㅅㅅㄱㅣ十 <華疏10:17-11:01>

d. 惟ㅅ 願ㅁ尸入ㄱ 仁慈ㅅ ᄀᆞᄅᆞ尸入ㅱ 特ㅅᄀᆞ 矜念ㅅ尸入乙 垂ㅣ ᄅᆞ下ㅅ {此}ㅣ 王位乙 捨ㅅᄀᆞㅎ 以ᄀᆞ {於}我ㅋ十 瞻ㅣㅁㅅᄅᆞ立 <華疏11:09-10>

e. 惟ㅅ 願ㅁ尸入ㄱ 大王ㅣᄅᆞㄱ入ㄱ 之乙 捨ㅅᄀᆞㅎ 我ㅋ十 與ㅅㅁㅅᄅᆞᄀ 幷ㅱ 及ㄷ 王ㅋ 身ㄱ 我ㅋ 臣僕ㅣ尸{爲}入乙ㅅㅁㅅᄅᆞ立ㅅᄀᆞㄱㅣ十 <華疏11:19-20>

f. 願ㅁ尸入ㄱ 普ㅣ 慈乙 垂ㅣᄅᆞ下ㅅ 得ᄀᆞㅎ 滿足 令ㅣㅁㅅᄅᆞ立ㅅᄀᆞ <華疏12:12-13>

g. 惟ㅅ 願ㅁ尸入ㄱ 仁慈ㅱ 善方便乙 以ᄀᆞㅅ 己ㅋ {有}ㅐᄅᆞᄆᆞㄱ 所乙 捨ㅅᄀᆞㅎ 我ㅈ乙 具足 令ㅣㅁㅅᄅᆞ立ㅅᄀᆞㄱㅣ十 <華疏15:20-16:01>

(24a)는 文殊師利菩薩이 賢首菩薩에게 請願하는 場面이고, (24b-g)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이라는 틀을 지닌 構文이다. 모두 'ㅁㅅᄅᆞ立'라는 語尾 構造體가 結合되어 있다. 이것은 15世紀 國語의 '-쇼셔', 現代 國語의 '-소서'에 該當하는 語尾 構造體이다. 다음으로 點吐 資料의 例를 보자.

(25) a. 願[15(·)] 更[34(|)] 演說聰慧者[23(-)] 後地[53(·),25(|·)] 決定[12(:)] 無餘道[41(·),43(|)] 利益一切諸[33(·)] 天人[41(·),23(/),53(|·)] <周本華嚴36, 01:12-13>

b. 勇猛大心[24(|),12(··)] 解脫月[33(·)] 請金剛藏[23(|)] 言[34(-),14(··)] 佛子[34(|)] 從此[41(·),25(·)] 轉[25(·)] 入第四地[53(·),32(/),13(/),24(|)] 所有[33(·),25(·)] 行相[41(·)] 願[15(·)] 宣說[23(/),53(|·),52(|),45(-),55(·.)] <周本華嚴36, 01:14-15>

c. 是[12(:)] 時[53(·)] 大士[24(|),14(··)] 解脫月[33(·)] 復[42(\)] 請無畏[24(|),24(:),12(··)] 金剛藏[53(|),21(:)] 第五[25(·)] 地[25(·)] 中[25(·.)] 諸行相[41(·)] 唯[23(:)] 願[15(·)] 佛子[24(|),15(.·)] 爲[24(\)] 宣說[23(/),53(|·),52(|),45(-),55(·.)] <周本華嚴

36, 07:20- 21>

(26) a. 爾時[53(·)] 兜率陀天王[33(·)] …… 向佛[41(·),34(-),43(|)] 合掌 白佛[35(·),53(|),34(|)] 言[34(-),14(··),21(|)] 善[24(·)] 來[12(!), 33(\)] 世尊[11(·)] 善[24(·)] 來[12(!),33(\)] 善逝[11(·)] 善來 如來應正等覺[11(·)] 唯[24(·)] 見哀愍[41(·|),43(|)] 處此宮殿[53(·), 23(/),53(|·),55(·.)] <周本華嚴22, 19:12-15>

b. 願[15(·)] 佛[24(\),14(··),15(·)] 世尊[51(\)] 亦[33(·)] 爲我等[12(:),41(:),23(-),43(·)] 如是[24(·)] 而[45(·)] 說[23(/),53(|·),45(··),55(·.)] <周本華嚴06, 01:19-20>

c. 願[15(·)] 隨其意[53(·)]所應受[12(:),24(\),44(/)] 演說妙法[41(·),?] 除疑惑[41(·),23(/),53(|·),52(·)] <周本華嚴06, 02:03>

d. 願[15(·)] 示此[24(|),53(·)] 法[41(·),43(|)] 令淸淨[42(·),23(/),53(|·)] <周本華嚴06, 02:05>

e. 願[15(·)] 隨衆生[23(-)] 心[25(·)] 樂[42(·),41(·|),24(\)] 說[23(/),53(|·)] <周本華嚴06, 02:09>

f. …… 爲利益[32(-),45(|·)] 故[24(·)] 當[24(·)] 開演[23(/),53(|·)] <周本華嚴06, 02:11>

g. 願[15(·)] 示能[24(·)] 知此[41(·),24(\),25(!)] 方便[41(·),23(/),53(|·)] <周本華嚴06, 02:13>

h. 願[15(·)] 爲佛子[23(-),43(·)?] 咸開暢[23(/),53(|·)] <周本華嚴06, 02:15>[13]

(25), (26)의 모든 예에 23(/)과 53(|·)이 記入되어 있다. 이것이 'ㅁㅅㅎ立'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다른 點吐가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A가 B에게 말하기를 '……하소서'라고 했다"의 밑줄 친 部分처럼 被引用文이 끝난 뒤에 上位文의 動詞가 連結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3(/)과 53(|·) 外에 다른 點吐는 없는 경우도 있는

13) 周本『華嚴經』卷6은 筆者가 直接 調査하지 못했기 때문에, 南豊鉉 先生님의 移點本을 參考했다.

데, 이것은 "A가 B에게 말했다, '……하소서'"처럼 被引用文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23(/)과 53(ㅣ·) 中 23(/)이 'ㅁㅅ'에 對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V已' 構文에 對한 論議에서 34(·)과 23(/) 둘 다 'ㅁ'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推定했었는데, 이 두 點吐가 아무 差異 없이 'ㅁ'에 對應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볼 方法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34(·)을 'ㅁ'로 보고 23(/)을 'ㅁㅅ'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方法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남은 53(ㅣ·)은 'ㅎ立'에 對應된다고 볼 수 있다. 或은 53(ㅣ·)을 그냥 '立'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可能性도 있다.

9. 引用 構文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나 혼자서 속으로 한 생각의 內容은 被引用文으로 나타나는데, 被引用文을 이끄는 動詞에는 特徵的인 吐가 붙는다. 字吐口訣의 樣相은 다음과 같다.

(27) a. 爾ㅓㅌㅅㄱ 時ㅓ 智首菩薩ㄱ 文殊師利菩薩ㅁㅓ 問ㅈ 言ㅎㅁ 佛子ㅈ 菩薩ㄱ 云何ㅌㅣㅣ 無過失身語意業ㄹ 得ㅿ <華嚴01:04-05>

b. 爾時ㅓ 文殊師利菩薩ㄱ 智首菩薩ㄹ 告ㅅㅈ 言ㅎㅁ 善ㅏㄱ {哉}ㅔ 佛子ㅣ <華嚴02:10-11>

c. 菩薩摩訶薩ㄱ {是}ㅂ {如}ㅈㅅㄱ 念ㄹ 作ㅅㅏㅁㅜ 一切衆生ㄱ {於}生死ㅌ 中ㅈㅓㅅㅈ 多聞ㅅㄱ 無有ㅁㅏㄱ <華疏08:19-09:04>

d. 若ㅌ 自ㅋㅠ 食ㅅㅎㅌ 時ㅣㅓㄱ {是}ㅂ 念言ㅅㅁㅅㄹ 作ㅅㅏㅁㅜ 我ㅋ 身ㅌ 中ㅈㅓ 八萬戶蟲ㅂ 有ㅌㅈ {於}我ㄹ 依ㅈㅎ 住ㅅㄱㅂㅛ <華疏09:12-13>

e. 復ㄱ {是}ㄲ 念乙 作ンナ尸丁 我ㄱ {於}長夜ゝ十ンゝ 其 身乙 愛著ンゝホ 充飽 令ㄲ{欲}人 而ㅟ 飮食乙 受ㄱゝマㄱㄲㅁ <華疏09:17-18>

f. 時十 或ㄱ 有ナㅣ 人ㄲ 來ンゝホ {是}ㄲ 言乙 作ンナ尸丁 汝ㄱ 今ンㄱ {有}ㅛメㄱ 所乙 悉ゝ 當ハ 我ラ十 與ンロハㄋ立ンㄊㄱㅣ十 <華疏10:07-08>

g. 菩薩ㄱ 自ラㅟ 念ンナ尸丁 我ㄱ 無始ㅟハ 已來マㄱム 飢餓乙 以三ㄱ入ㅟ <華疏10:08-09>

h. 時十 或ㄱ 有ナㅣ 人ㄲ 來ンゝホ 王ラ十 白ゝ 言白ナ尸丁 大王下 當ハ 知ロハㄋ立 <華疏10:17-18>

i. 爾七ンㄱ 時十 菩薩ㄱ {是}ㄲ 念言ノ尸入乙 作ンナ尸丁 今七 我ラ {此}ㄲ 身ㄱ 後ㄲ十乃 當必ンゝ 死ンㄊㄱㅣ十ㄱ 一ㄱ 利益ノ尸ヤㄱ 無七ㄊ禾ゝ七ㅣ <華疏11:02-03>

j. 時十 或ㄱ 有ナㅣ 人ㄲ 來ンゝホ 王ラ十 白ゝ 言白ナ尸丁 我ㄱ 今ンㄱ 貪窶ンゝ 衆ㄱ 苦ㅟ 逼迫ノㄱㄲロ乙マㅣ <華疏11:08-09>

k. 爾七ンㄱ 時十 菩薩ㄱ {是}ㄲ 念言ノ尸入乙 作ンナ尸丁 一切 榮盛ンㄱㄱ 必當ンゝ 衰歇ンㄊ禾ゝ七ㄉ <華疏11:11-12>

l. 時十 或ㄱ 有ナㅣ 人ㄲ 而ㅟ 來ンゝホ 白ゝ 言白ナ尸丁 {此}ㄲ 轉輪位ゝ十 王ㄱ 處ンㄋマㄱム 已ゞ 久ㄊハㄋロㄱゞ <華疏11:18-19>

m. 爾七ンㄱ 時十 菩薩ㄱ {是}ㄲ 念言ノ尸入乙 作ンナ尸丁 我ラ 身ゞ 財寶ゞ 及七 以ゝ 王位ゞノ仝ㄱ 悉ゝ {是}ㄲㄱ 無常ㄲㅁ 敗壞ンㅅ七 {之} 法ㄲㄱゞ <華疏11:20-12:02>

n. 時十 有ナㅣ 量ㄲ 無七ㄱ 貪窮ンヒ七 {之} 人ゞ 來ンゝホ 其 前ゝ十 詣ゝ 而ㅟ {是}ㄲ 言乙 作ンナ尸丁 大王ラ 名稱乙 周七 十方ゝ十 聞ㄲロハㄋㄱ <華疏12:09-11>

o. 菩薩ㄱ 是七ンㄱ 時十 心ゝ十 {是}ㄲ 念乙 作ンナ尸丁 一切 恩愛ㄉ 會{恨}ンㄋンロハㄱ 當ハ 別離ノ禾ㄱゞ 而ㄱ{於}衆生

ᄒᆞ十ᄀ 饒益ᄂᆞᆫᄃᆞ 所ᄒᆞ 無七亡ᄎᆞᄒᆞ七ㅣ <華疏12:15-16>

p. 復ᄀᆞᆯ {是}ㅣᆫ 念ᄀᆞᆯ 作ᄂᆞᆫᄃᆞᆫ 若七 法ㅣᆫ 有 非ᄋᆞᆨᄀᆞ ㅣᆫᄃᆞᆫ 入ᄀᆞ 不可ᄂᆞㅣ 捨ᄂᆞᆫᄃᆞ 不ᄉᆞᆼᄂᆞᆫᄃᆞᆫ <華疏14:03-04>

q. 佛子ᄒᆞ {此}ㅣᆫ 菩薩ᄀᆞ 假使ᄆᆞᆷᄒᆞ 有ᄂᆞㅣ 量ㅣᆫ 無七ᄀᆞ 衆生ㅣᆫ …… 來ᄂᆞᆫᄒᆞᄉᆞ 其 所ᄒᆞᆫ 至ᄒᆞ 菩薩ᄃᆞᆫᄒᆞ 告ᄂᆞᆫᄒᆞ 言白ᄂᆞᆫᄃᆞᆫ 我ᄋᆞᆫᄒᆞ 身ᄀᆞ 薄祐ᄂᆞᆫᄒᆞ 諸ᄀᆞ 根 殘缺ᄂᆞᄅᆞ七ᄂᆞㅣ <華疏15:17-20>

r. 復ᄀᆞᆯ {是}ㅣᆫ 念ᄀᆞᆯ 作ᄂᆞᆫᄃᆞᆫ {此}ㅣᆫ 身ᄀᆞ 危ᄒᆞᆷ 脆ᄒᆞᆷᄂᆞᆫᄒᆞ 堅固ᄂᆞᆫᄀᆞ 無有ᄀᆞᆯ 我ᄀᆞ 今ᄂᆞᆫᄀᆞ 云何七ᄉᆞ {而ᄆᆞ} 戀著ᄂᆞᆫᄃᆞᆫ 入ᄀᆞᆯ 生ㅣᆫᄆᆞᄎᆞᄒᆞ七ᄅᆞ <華疏16:10-12>

(27)에서 볼 수 있듯이 引用 動詞에 붙는 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華嚴經』에는 두 例 모두 'ᄒᆞᆫᄃᆞ'이 붙었고, 『華嚴經疏』에는 한결같이 'ᄂᆞᆫᄃᆞᆫ'가 붙었다. 'ᄒᆞᆫ'는 主體 尊待 先語末語尾로서 主體가 尊待할 만한 對象인가에 따라 隨意的으로 들어가는 要素이므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結局 被引用文을 이끄는 動詞에 붙는 吐는 『華嚴經』 系統의 資料에 限定한다면 'ᄃᆞ'과 'ᄂᆞᆫᄃᆞᆫ'로 壓縮된다. 'ᄂᆞᆫᄃᆞᆫ'가 붙은 例는 언뜻 보아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서 입밖으로 말하는 경우도 꽤 있다(27f, h, j, l, n, q).

다음으로 點吐 資料를 보자.

(28) a. 自在天王[33(·)] 大[24(ㅣ)] 欣慶[23(ㅣ)] 雨摩尼寶[41(·),24(ㅣ),43(ㅣ)] 供養佛[41(·),23(ㅣ)] 讚言[21(ㅣ)] 佛[33(·)] 爲我[23(-),43(·)] 出興[43(ㅣ)] 演說第一功德[25(·)] 行[41(·),23(/),12(!),24(ㅣ)?,55(\·)] <周本華嚴36, 01:08-09>

b. 勇猛大心[24(ㅣ),12(··)] 解脫月[33(·)] 請金剛藏[23(ㅣ)] 言[34(-),14(··)] 佛子[34(ㅣ)] 從此[41(·),25(·)] 轉[25(·)] 入第四地[53(·),32(/),13(/),24(ㅣ)] 所有[33(·),25(·)] 行相[41(·)] 願[15(·)] 宣說

[23(/),53(|·), 52(|),45(-),55(·.)] <周本華嚴36, 01:14-15>

c. 爾時[53(·)] 金剛藏菩薩[33(·)] 告解脫月菩薩[41(·),23(|)] 言[14(··)] 佛子[34(|)] 菩薩摩訶薩[24(|)] 第三地[41(·)] 善[24(·)] 淸淨[14(:)] 已[43(·),34(·)] <周本華嚴36, 01:16-17>

d. 復[42(\)] 作是念[41(·),21(|)] 我[33(·)] 當[23(:)] 於一切衆生[25(·)] 中[53(·)] 爲首[14(i),41(··),52(·)] <周本華嚴36, 05:07-08>

e. 爾時[53(·)] 金剛藏菩薩[33(·)] 欲重[24(\)] 宣其義[41(·),32(-)] 而[45(·)] 說頌[41(·),34(|)] 言[14(··)] …… <周本華嚴36, 05:14-15>

f. 菩薩[33(·)] 聞此[24(|)] 勝地[25(·)] 行[41(·),34(·),12(:)] 於法[53(·)] 解悟[43(|)] 心[42(|)] 歡喜[23(|)] 空中[53(·)] 雨華[41(·),24(|),34(·)] 讚歎[23(|)] 言[34(-),21(|)] 善[21(!)] 哉[33(\)] 大士[24(|),14(··)] 金剛藏[11(·),52(.·)] <周本華嚴36 07:03-04>

g. 天[25(·)] 諸[33(·)] 采女[33(·)] …… 於彼彎[25(·)?] 中[53(·),33(·)] 發是言[41(·),21(|)] …… <周本華嚴36 07:07-08>

h. 是[12(:)] 時[53(·)] 大士[24(|),14(··)] 解脫月[33(·)] 復[42(\)] 請無畏[24(|),24(:),12(··)] 金剛藏[53(|),21(:)] 第五[25(·)] 地[25(·)] 中[25(·.)] 諸行相[41(·)] 唯[23(:)] 願[15(·)] 佛子[24(|),15(.·)] 爲[24(\)] 宣說[23(/),53(|·),52(|),45(-),55(·.)] <周本華嚴36, 07:20- 21>

i. 爾時[53(·)] 金剛藏菩薩[33(·)] 告解脫月菩薩[44(·),53(·),23(|)] 言[14(··)] …… <周本華嚴36 07:22>

j. 佛子[34(|)] 此菩薩摩訶薩[33(·)] 復[42(\)] 作是念[41(·),21(|)] <周本華嚴36, 09:13-14>, <周本華嚴36, 09:21-22>

k. 復[42(\)] 作是念[41(·),21(|)] 我[33(·)] 當[23(:)] 於衆生[25(·)] 中[53(·)] 爲首[14(i),41(··),52(·)] 爲勝 爲殊勝 爲妙 爲微妙 爲上 爲無上[14(i),41(··),52(·)] 乃至[24(|)] 爲一切智智依止者[14(i),41(··)?,51(·.),21(··),55(\·)] <周本華嚴36, 12:23-13:01>

周本『華嚴經』에서도 懸吐 樣相은 大體로 둘로 나타난다. 14(··)과 21(ㅣ)이 그것인데, 이 둘을 (27)에서 본 'ㅎㆍ' 및 'ㅏㆍㄱ'와 關聯짓는 것은 自然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14(··) 앞에는 間或 34(-)이 나오기도 하는데(28b, f), 둘 다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하는 行爲이므로 이것을 客體 尊待 先語末語尾 '白'과 關聯지을 수 있을 것이다. 14(··)가 記入된 경우의 主體를 보면 解脫月菩薩(28b), 金剛藏菩薩(28c, e, i)로서 尊待를 할 만한 對象이다. 따라서 14(··)을 'ㅎㆍ'과 對應시킬 만하다. 14(·)이 'ㆍ'에 對應되므로 같은 位置의 複合吐가 'ㅎㆍ'에 對應되는 것은 自然스러운 일이다. 12(ㅣ)와 'ㅏㆍㄱ'의 對應도, 12(·)이 'ㄱ'에 對應됨을 考慮할 때, 큰 無理가 없다고 생각된다.

(28h)에서는 특이하게 21(:)이 使用되었다. 主體가 解脫月菩薩로서 尊待할 만한 對象이다. 12(ㅣ)이 'ㅏㆍㄱ'에 對應된다면 12(:)은 이와 區別되는, 主體 尊待의 'ㅎ'를 包含한 吐일지도 모른다.

10. 逆接 構文

"……이지 ……가 아니다"와 같은 形式으로 肯定할 내용을 先行節에 提示하고 否定할 내용을 後行節에 提示하고자 할 때, 現代 韓國語에서는 連結語尾 '-지'를 使用하는데 이것은 15世紀의 '-디비'에서 나온 것이다. 字吐 釋讀口訣에서 이런 機能을 하는 吐를 살펴보자.

(29) a. 我ㅋ 今ᄉᆞᆫ {此}ㅣ 有ㅌㄱ 所ㅌ 飮食ㄹ 受ㅏㅇㄱㅅㄱ 願ㅁㆍㄱ ㅅㄱ 衆生ㄷ 普ㅣ 充飽ㅅㆍㄱㅅㄹ 得ㅣ 令ㅣㅇ木ᄌᆞㅌㅣㄴㅏᄌᆞ 彼ㅋ十 施ㄴ{爲}ㅅㄴㆍㄱㅅㅁ 故ᄉᆞᆫᄋᆞ 而ㅁ 自ㅋㅁ {之}ㅣㄹ 食ㄴㅏㅎᄉᆞᆫᄃᆞ 其 味ᄌᆞ十 貪ㆍㄱ 不ㄴㅏㅎ<華疏09:15-16>

b. 菩薩ㄱ {是}ㅣ {如}ᄉᆞㄴㆍㄱ {等}ㅣㄴㄱ 量ㅣ 無ㅌㄱ 慧藏ㄹ

成就ンナヽ 少センフ 方便乙 以ヽ 一切法乙 了ノ戸ム 自然明達ンナ令ミ 他乙 由三ヽ 悟戸 不ンナケ <華疏19:09-11>

c. 亦ンフ 法セ 光明乙 以ヽ 而ㅠ 法乙 演說ノ戸ム 窮盡戸 無有リンナ令ミ 疲倦乙 生リ戸 不ンナヤセ丨 <華疏25:20-26:01>

d. 是故ㅠ {於}彼ラ十 厭惡ンヽホ 而ㅠ 住ン戸ユ 不厭惡ン令 非矢丨 <瑜伽20:16-17>

(29a)는 "내가 飮食을 먹는 것은, 내 몸 안의 수많은 벌레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을 貪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程度의 意味를 갖는다. (29b)는 "菩薩이 一切法을 알되 自然히 通達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은 아니다" 程度의 意味를 갖는다. (29c)는 "法의 光明으로써 法을 演說하되 다함 없이 해야지, 싫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意味를 나타낸다. 이렇게 先行節을 肯定하고 後行節을 否定할 때, 'ナ令ミ'가 두 節을 接續하고 있다. 『華嚴經』 系統이 아닌 (29d)에서는 '戸ユ'가 이와 비슷한 機能을 하고 있다.

點吐 資料의 例는 다음과 같다.

(30) a. 以信解智[25(·)] 力[41(·),34(|)] 知[11(/)] 非以究竟智[25(·)] 力[41(·),34(|)] 知[13(!),33(·),35(·),55(.·)] <周本華嚴36, 09:03-04>

b. 我[33(·)] 今[12(:)] 爲彼一切衆生[23(-),43(·)] 修行福智[25(·)] 助道[25(·)] 之法[41(·),13(··)] 獨一[23(\)] 發心[13(/)?,52(/)?, 11(/)] 不求伴侶[41(·),44(·),21(··),55(\·),51(·.)] <周本華嚴36, 09:24-10:01>

(30a)는 "信解智力으로써 아는 것이지, 究竟智力으로써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며, (30b)는 "내가 이제 저 一切衆生을 위해 福智助道法을 修行하되 혼자서 發心해서 하는 것이지 伴侶를 求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두 例 모두 先行節의 動詞에 11(/)이 記入되어 있다.

11(·)이 'ㅅ'에 對應됨을 考慮할 때 11(/)은 'ㅅ'를 包含한 複合吐에 該當할 것이다. (29)와 (30)을 比較할 때 11(/)이 'ㅏᄉㅅ'에 對應될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된다.

11. 나오는 말

以上 9個 構文으로 나누어 點吐口訣과 字吐口訣의 對應에 對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構文 類型을 다 檢討한 것도 아니고, 點吐와 字吐의 對應 關係를 다 살펴보지도 못했다. '不能' 構文도 매우 흥미로운 對應 樣相을 보이나, 몇 가지 풀리지 않은 問題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다. 남은 問題들이 앞으로 解決되어 點吐口訣에 대한 理解가 더 깊어지기를 希望해 마지않는다.

點吐口訣 資料와 字吐 釋讀口訣 資料를 對照하면서 살펴보면, 매우 精密한 對應 關係에 놀라게 된다. 點吐口訣 資料 周本『華嚴經』과 字吐 釋讀口訣 資料『華嚴經』卷14 및『華嚴經疏』卷35의 懸吐 양상이 서로 놀라울 程度로 一致하고, 點吐口訣 資料『瑜伽師地論』과 字吐 釋讀口訣 資料『瑜伽師地論』卷20의 懸吐 양상이 서로 놀랄 만큼 一致한다. 點吐와 字吐의 差異는 事實 表面的인 差異에 不過하며, 그보다는 華嚴宗과 法相宗이라는 宗派의 差異가 훨씬 더 重要한 差異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金永旭(2001),「『瑜伽師地論』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口訣硏究』7, 口訣學會, pp.57~77.

_____(2002),「周本 華嚴經 卷36의 照査 硏究 中間 報告書」, 韓國學術振興財團 協同硏究支援事業 中間報告書, pp.145~147.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對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_____(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中心으로」, 『朝鮮學報』 183, 朝鮮學會, pp.1~22.

_____(2002), 「周本華嚴經 卷6의 點吐釋讀口訣 硏究」, 韓國學術振興財團 協同硏究支援事業 中間報告書, pp.51~52.

_____·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對하여」, 『訓点語と訓点資料』 107, 東京: 訓点學會, pp.69~102.

尹幸舜(2002),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中間報告書」, 韓國學術振興財團 協同硏究支援事業 中間報告書, pp.97~100.

李丞宰(2001),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對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32.

_____(2002), 「周本『華嚴經』 卷第57의 角筆 符號口訣에 對하여」, 韓國學術振興財團 協同硏究支援事業 中間報告書, pp.177~181.

_____·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對한 照査 硏究: 誠庵本『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115~145.

張景俊(2002), 「點吐釋讀口訣 資料에 記入된 口訣字와 對應 口訣點에 對하여: 『瑜伽師地論』 卷5, 8을 對象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205~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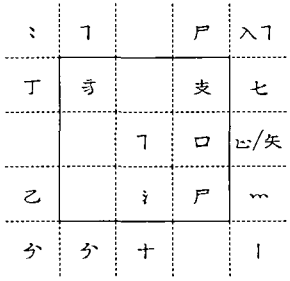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對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33~56.

_____(2002), 「晉本 華嚴經 卷二十의 角筆 符號口訣에 對하여」, 韓國學術振興財團 協同硏究支援事業 中間報告書, pp.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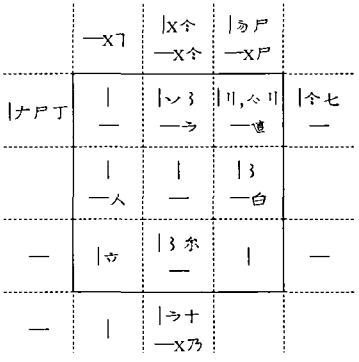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342-91]
E-mail: synpjh@sejong.or.kr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Appendix】

single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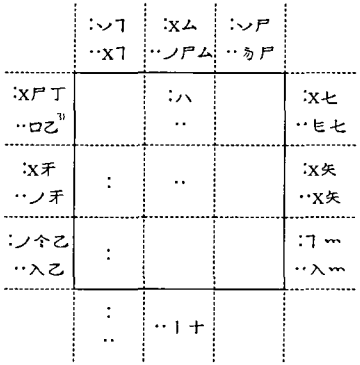
vertical lines, horizontal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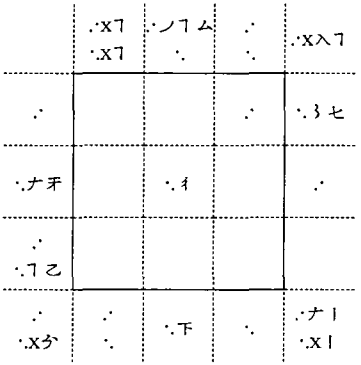
(backword) sla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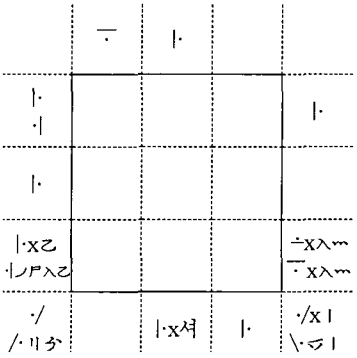
vertical／horizontal double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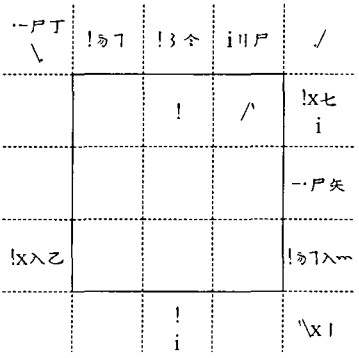
(backward) slant double points



eyebrows



exclamation marks



Interpretation of Mark Gugyeols(點吐口訣) written in Zhouben(周本) 『Huayan jing(華嚴經)』 volume 36

-With Special Interest in Correspondence with Character Gugyeols(字吐口訣)-

Park, Jin-ho

This paper aims at interpreting Mark Gugyeols(点吐口訣) written in Zhouben(周本) ≪Huayan jing(華嚴經)≫ volume 36 which is in Seong-am Classics Museum(誠庵古書博物館). These Mark Gugyeols include ①single points(單点), ②double points(双点), ③lines(線), ④marks which look like eyebrows, and ⑤marks which look like exclamation marks. The four except single points appear in four orientations: horizontal, vertical, slant and backward slant. These Mark Gugyeols together with their corresponding Character Gugyeols are summarized in the Appendix.

The correspondences shown in the Appendix can be obtained by comparing constructions of the same type which appear in both Mark Gugyeol and Character Gugyeol materials. For this purpose, I examine nine construction types: i.e. ① '爲N' construcion, which means "for the sake of N", ② 'V已' construcion, which means "after having done ……", ③ enumerating construction, ④ '等'(etc) construcion, ⑤ '作/爲N'

construction, which means "become N", ⑥ naming construction, ⑦ requesting construction, ⑧ quotation construction, and ⑨ contrasting construction.

These comparisons result in surprisingly exact match between Mark Gugyeols and Character Gugyeols used in materials belonging to『Huayan jing(華嚴經)』.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Mark Gugyeol and Character Gugyeol is only apparent, and is not so much profound as between Huayan zong(華嚴宗) and Faxiang zong(法相宗).

*Key words: Mark Gugyeol, Character Gugyeol, correspondence between Mark Gugyeols and Character Gugyeols, Huayan jing